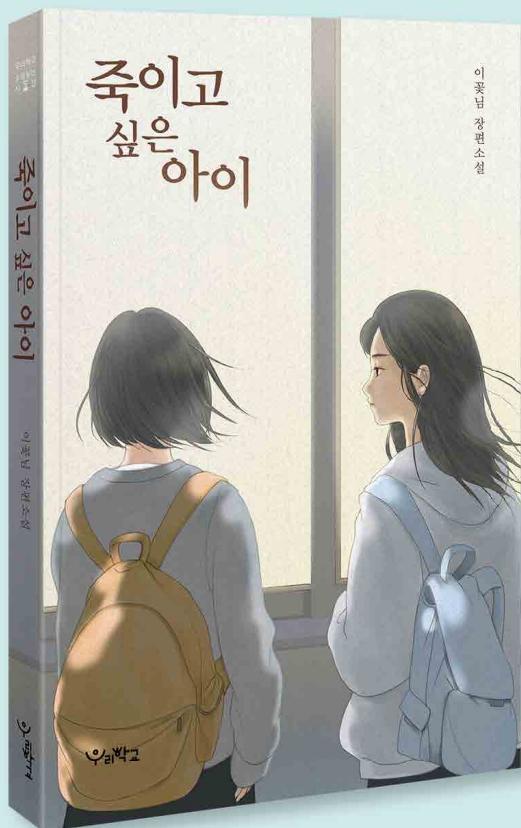


죽이고 싶은 아이



※ 이 자료는 우리학교 홈페이지(woorischool.c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책 소개

『죽이고 싶은 아이』는 한 여고생의 죽음이라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진실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낸다.

진실이 멋대로 편집되고 소비되는 세상

이 소설은 심리 미스터리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주위의 부러움과 시샘을 한몸에 받던 주연의 숨겨진 얼굴이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속속 밝혀지는 장면을 보며 성급한 독자들은 ‘결국 진실은 언제가 밝혀진다’는 오래된 명제를 떠올리며 안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찬찬히 들여다보면 작가는 범인이 누군지 혹은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사건의 실마리를 추적해 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과 그 속에 담긴 각각의 욕망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이제 더 이상 미디어는 진실이 아니며 여론은 정의가 아니다. 가짜뉴스, 유언비어, 악성 루머는 네트워크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타인의 불행을 먹이 삼아 이어지는 댓글 테러, 신상털이, 마녀사냥은 그칠 줄을 모른다. 온갖 예단과 억측이 강물처럼 흘러 다니지만 누구도 그걸 막을 생각은 없어 보인다. 자기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 놓담처럼 즐기고 가볍게 소비할 뿐이다. 청소년들의 놀이터인 인터넷 공간은 마녀사냥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어른들도 속절없이 끌려가는 깨진 거울과도 같은 세계에서, 청소년들은 더 쉽게 휘둘리고 더 쉽게 상처받는다.

『죽이고 싶은 아이』는 이런 적나라한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보이는 대로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 얼마나 야만적인지를 독자들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 보인다. 또한 조각난 진실의 파편이 멋대로 편집되고 소비되는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평온할 수 없음을 섬뜩하게 경고한다.

잔인한 서사를 지탱하는 건 결국, 서로를 향한 마음

또한 비극적 사건을 통해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가치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준다. 빗나간 인과응보, 잘못된 모성애, 어긋난 가족 관계, 조각난 진실 속에서 독자들이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용의자인 주연이 몹시 외로운 아이였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주연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이해해 준 사람은 서운하나뿐이라는 점이다. 심 대 청소년에게 친구는 자극히 현실적이고 예민한 과제이다.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한 사람만 있어도 불안은 누그러들고 어려움도 견딜 만해진다. 주연과 서운의 관계도 처음엔 그랬다. 하지만 관계 맷기에 서툰 아이들의 우정은 조그마한 균열에도 쉽사리 흔들리고 깨지기 마련이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별을 겪는다. 특히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청소년기에 겪는 이별은 더 가슴 저미는 상실감으로 다가올 것이다. 주연의 폭주는 상실감을 충분히 애도하지 못한 이들에게서 나오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가지며 상실을 애도한 사람만이 다시 길을 갈 수 있고 먼 길을 거쳐 이윽고 어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죽이고 싶은 아이』는 강렬한 서사와 독특한 소설적 구조 속에 우리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를 잘 녹여내는 동시에 오늘의 청소년 문제가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주는 작품이다.

■ 학습 목표

중학교 때부터 단짝 친구였던 주연과 서은. 어느 날 학교 공터에서 서은이 살해당한 채 발견되고, 주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는 데서 이 소설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변 인물들의 증언과 주연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서서히 진실과 고통에 직면하게 되지요.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정한 관계와 우정이 무엇인지, 안타까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의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 ① 서은과 주연은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살펴보고 친구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봅시다.
- ② 두 친구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을 보면서 감정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③ 진실한 우정을 만들어가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성찰해 봅시다.

■ 차시별 활동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비고
1	읽기 전	<p>[활동1] 제목과 표지를 보고 내용 상상하기</p> <p>[활동2] 친구와 다툼 경험과 화해한 과정 말해 보기</p> <p>[활동3] 학교 폭력을 다른 언론 매체의 보도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기</p>	
2	읽기 중	<p>[활동1] 공감이 가는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 찾기</p> <p>[활동2] 주연의 문제 행동과 그 이유 생각해 보기</p> <p>[활동3] 책의 내용과 유사한 경험 떠올려 보기</p> <p>[활동4] 내가 작품 속 인물이라면 다르게 대응했을 것 같은 인물 찾기</p>	
3	읽기 중	<p>[활동5] 주연을 범인이라고 추정한 이유</p> <p>[활동6] 주연 가족의 생각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역할 생각해 보기</p> <p>[활동7] 친구와의 친밀도 테스트</p>	
4	읽기 후	<p>[활동1] 결말 바꾸기</p> <p>[활동2]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p> <p>[활동3] 주연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기</p>	
5	읽기 후	<p>[활동4] 스트레스와 공격성 (뇌과학)</p> <p>[활동5]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태도 (관련 기사 탐구)</p> <p>[활동6] 진정한 우정 (다른 이야기와 엮어 읽기)</p>	
6	심화 활동	영화 <우리들> 감상하기	모둠 활동

1차시

읽기 전 활동 ① 제목과 표지를 보고 내용 상상하기

『죽이고 싶은 아이』의 표지와 제목을 연관 지어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 ■ ■ 읽기 전 활동 ② 친구와 다툼 경험과 화해한 과정 말해 보기

친구와 함께한 기억을 떠올리며 질문에 답해 봅시다.

1. 친한 친구와 심하게 다툼 적이 있나요?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2. 친구와의 다툼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나요?

3. 친구와 함께했던 추억 중에 가장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 ■ ■ 읽기 전 활동 ③ 학교 폭력을 다룬 언론 매체의 보도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기

1. ‘학폭 미투’라는 말을 알고 있나요?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루는 언론 매체의 보도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2. 다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매체의 문제점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게 말입니다.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상식적으로 얘가 그렇게 됐으면 가슴 아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기자니 피디니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뭘 그렇게 캐묻는지. 먼저 간 얘에 대한 예의도 없는지, 학생들 놀라고 슬퍼하는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지, 그저 뭐 하나 조그마한 거라도 나오면 이만큼씩 부풀려 기사나 써 대고 말입니다.

- 이꽃님『죽이고 싶은 아이』, 157쪽

 **읽기 중 활동 ① 공감이 가는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 찾기**

이 작품에서 가장 공감이 가는 인물과 가장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각각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_____(이)가 가장 공감이 갔다.

그 이유는

나는 _____(이)가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 읽기 중 활동 ② 주연의 문제 행동과 그 이유 생각해 보기

주연이 서은에게 했던 행동들 중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고,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예) 조별 수행평가를 할 때 서은에게 놀아도 되는 애를 정해 주었던 행동

- 서은이 다른 친구와 친해지게 되어 자신과 멀어질까봐 두려움을 느낀 것 같다.

■■■ 읽기 중 활동 ③ 책의 내용과 유사한 경험 떠올려 보기

책에 나오는 사건들 중 유사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예) 친구가 거짓 소문을 퍼뜨린 적이 있다.

- 내가 친구와 멀어질까봐 두려워서

■ ■ ■ 읽기 중 활동 ④ 내가 작품 속 인물이라면 다르게 대응했을 것 같은 인물 찾기

내가 만일 주연의 주변 인물이라면 책의 내용과 다르게 대응했을 것 같은 인물은 누구인가요?
과연 나라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 | | |
|----------|---------------|
| - 주연의 엄마 | - 김 변호사 |
| - 주연의 아빠 | - 장 변호사 |
| - 담임 선생님 | - 학원 앞 편의점 점주 |
| - 학급 친구 | - 학부모 |

 읽기 중 활동 ⑤ 주연을 범인이라고 추정한 이유

책을 읽으면서 주연이 범인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읽기 중 활동 ⑥ 주연 가족의 생각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역할 생각해 보기

다음 내용을 읽고, 세 사람의 생각이 다른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주연

주연은 언제든 해외 여행을 가고, 가격에 상관없이 남들보다 먼저 유행하는 물건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주연은 여행이 즐겁지 않았다. 아빠는 바쁜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간신히 여행길에 올랐고, 때문에 여행에 가서도 잠을 자거나 일을 해야 했다. 엄마는 주연을 잡아끌며 사진을 찍어 대기 바빴고 사진을 찍고 나면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 휴대폰에 고개를 박았다. 주연은 매번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즐거운 일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빠

그는 딸에게 큰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자신의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려고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때가 되면 여행을 떠났고, 제일 좋은 레스토랑에서 한 달에 세 번은 꼭 외식을 했다. 생일 때마다 어떤 선물이든 사 줬고,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뭐든 했다.

엄마

생각해 보면 주연은 늘 까다로운 아이였다. 온갖 신기한 장난감을 사 줘도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주연은 언제나 무표정이었다. 새로 사온 장난감 앞에서도, 새로 산 옷 앞에서도, 값비싼 음식을 먹을 때도 기뻐할 줄 몰랐다. 딸은 어떤 걸 해 줘도 행복해하지 않았고 그때마다 주연의 엄마는 막막했다. 어떻게 하면 딸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딸과 잘 지낼 수 있을까.

■ ■ ■ 읽기 중 활동 ⑦ 친구와의 친밀도 테스트

나는 친구와 어느 정도의 친밀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테스트해 볼까요?

1. 다른 친구들은 모르는 우리 둘만의 비밀이 있다.
2.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할 때 곁을 지켜준 적이 있다.
3. 친구를 위해 학원을 빼먹은 적이 있다.
4. 친구와 밤늦게까지 통화를 한 적이 있다.
5.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오해를 받을까봐 일부러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6. 나는 그 친구의 생일을 알고 있다.
7. 나는 그 친구의 장점을 10초 안에 5개 이상 말할 수 있다.
8. 만약 그 친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아도 나는 그 친구 편이 되어 줄 것이다.
9.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 때 그 친구가 내 편이 되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10. 그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줄 때 1시간 이상 고민하게 된다.
11.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친구한테 털어놓을 수 있다.
12.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친구한테 꼭 이야기한다.
13. 그 친구를 도와주다가 나한테 손해가 생겨도 상관없다. (내 의지로 도와주었을 때)
14. 그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있다.
15. 서로 티격태격 장난을 친다. (서로 디스)
16. 그 친구가 없는 삶은 지루하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결과

12개 이상 우리는 튼튼한 우정을 쌓은 진정한 친구

8개 이상 조금 더 서로에게 관심을^^

7개 이하 우리 친구 맞아?

■ ■ ■ 읽기 후 활동 ① 결말 바꾸기

소설의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만약 내가 결말을 다르게 쓸 수 있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요?

■■■ 읽기 후 활동 ②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

만일 이 사건이 배심원 재판으로 다루어지고,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 읽기 후 활동 ③ 주연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기

주연이는 어떤 아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 읽기 후 활동 ④ 스트레스와 공격성 (뇌과학)

다음은 어떤 뇌과학자가 뇌와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 쓴 글입니다. 이 글을 읽고, 주연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건강한 뇌를 갖도록 유전자와 환경이 별이는 상호작용에서 스트레스는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스트레스, 그중에도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아이들의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을 억제한다. (중략)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아이의 뇌에 치명적인 독이 된다.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높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코르티솔은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 결합을 일으켜 신경세포의 형성 등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영향을 끼친다. 그 결과 뇌의 기본 구조 형성이 방해를 받게 되고 건강한 뇌 발달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뇌의 기본 구조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 문제는 평생동안 지속된다. 그 밖에도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공격 성향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폭풍처럼 바뀌는 아이들의 뇌에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은 치명적인 독과 마찬가지다.

- 신성욱『조급한 부모가 아이 뇌를 망친다』, 180~181쪽

■ ■ ■ 읽기 후 활동 ⑤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태도 (관련 기사 탐구)

학교 폭력 문제는 오늘날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아래 글을 읽고,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학교폭력을 곁에서 지켜보는 교사와 학부모들은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대 청소년 피해자들은 학교폭력의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기도 해서다. 서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본부장은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해서 10대 청소년 인터뷰를 해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방관하던 주변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그냥 ‘밥 먹었냐’ ‘오늘 이거 같이 할래?’라고 말을 걸며 친구가 되어주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촉진된다고 한다.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피해 학생이 ‘내가 이상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관련 연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을 다루는 사회적 에너지가 가해자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선을 피해자 회복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이다.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와 그에 대한 대응을 담은 책 <아빠가 되어줄게>의 저자 이해준씨는 학교폭력 피해 관계자 상담을 100여 건 진행했다. 그는 “상담을 해보면 피해자 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건 ‘회복’이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자녀에 대한 상처 치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족이 어떻게 일상을 회복할지 등의 고민이 최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상담을 담당하는 안정선 경희중 교사도 같은 생각이다. 피해자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상처를 제때 치유하지 못한 피해 학생은 나중에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몸이 작아서 당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 성장한다. 그때 자기 안에 응축됐던 것이 나올 수 있다. 그동안 자기도 억울했으니까, 누군가한테 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과거 가해자에게 보복하면서 가해·피해가 섞이기도 하고, 다른 아이를 가해하기도 하고, 완전히 엉뚱하게 자기를 해치기도 한다. 그렇기에 반드시 피해 학생의 상처를 보듬어줘야 한다.”

결국 학교폭력은 ‘아이들의 일’ ‘지나갈 일’ 정도로 치부하는 시각을 바꾸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 이해준씨는 “학교폭력 자체를 교사의 관리 부실로 생각한다는 상급 관리자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다 보니 덮으려고 한다. 또한 학교폭력을 단순히 사회화 과정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서 깜짝 놀란다”라고 말했다. 차용복 해맑음센터 부장도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런 (학교폭력) 경험 없는 애들이 누가 있느냐’라는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 학교와 또래가 전부인 시기에, 아이가 접하는 최대이자 최고 사회인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사소하지 않다고 바라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시사IN <2021 학교폭력, 더 치밀해지고 더 복잡해진다> (sisain.co.kr)

■ ■ ■ 읽기 후 활동 ⑥ 진정한 우정 (다른 이야기와 엮어 읽기)

다음은 개구리와 두꺼비의 우정을 다룬 짧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좋은 친구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어느 여름날 개구리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두꺼비가 말했어요.

“개굴아, 너 정말 파랗다.”

개구리가 대답했지요.

“나야 늘 파랗지, 뭐. 개구리니까.”

“오늘은 개구리치고도 너무 파랗다. 자, 내 침대로 와서 좀 쉬어.”

그러면서 두꺼비는 개구리한테 뜨거운 차를 한 잔 타 주었어요.

개구리는 차를 마시고 나서 말했어요.

“쉬는 동안 이야기나 하나 해 줘.”

“좋아, 좀 기다려. 이야기를 생각해 낼 테니까.”

두꺼비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하지만 개구리한테 해 줄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두꺼비가 말했어요.

“문 앞으로 나가서 왔다갔다해야겠어. 그럼 이야기가 생각날 것 같아.”

두꺼비는 문 앞으로 나가서 한참 동안 왔다갔다했어요.

하지만 개구리한테 해 줄 이야기는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꺼비는 머리에다 물을 한 컵 확 부었어요. 개구리가 물었어요.

“왜 머리에다 물을 뿐니?”

두꺼비가 대답했지요.

“머리에다 물을 확 부으면 이야기가 생각날 것 같아.”

두꺼비는 자기 머리에다 물을 몇 컵이나 연거푸 부었어요. 하지만 개구리에게 해 줄 이야기는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꺼비는 벽에다 머리를 쾅쾅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개구리가 물었어요.

“왜 벽에다 머리를 쾅쾅 부딪히니?”

두꺼비가 대답했지요.

“벽에다 머리를 쾅쾅 부딪히면 이야기가 생각날 것 같아.”

개구리가 말했어요.

“두껍아, 이제는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 나는 이제 이야기가 필요 없어.”

두꺼비가 말했지요.

“그럼 침대에서 나와. 내가 눕게. 나는 지금 기분이 아주 나쁘거든.”

개구리가 물었어요.

“두껍아. 내가 이야기 하나 해 줄까?”

“그래, 아는 거 있으면 해 줘.”

개구리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옛날 옛날에 친구 둘이 있었단다. 개구리와 두꺼비였지. 하루는 개구리가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단다. 개구리는 친구 두꺼비한테 이야기를 하나 해 달라고 했지. 두꺼비는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았단다. 문 앞에서 왔다갔다해 보았지만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았단다. 물구나무서기를 해 보았지만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았단다. 머리에 물을 부어 보았지만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았단다. 벽에다 머리를 쾅쾅 부딪혀 보았지만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았단다. 그러자 두꺼비는 기분이 아주 나빠지고 개구리는 기분이 아주 좋아졌단다. 그래서 두꺼비는 침대에 가서 눕고 개구리는 일어나 두꺼비한테 이야기를 하나 해 주었지. 이야기 끝. 이 이야기 어때?”

개구리가 물었어요. 하지만 두꺼비는 대답이 없었지요. 그만 잠이 들었거든요.

- 아놀드 로벨 『개구리와 두꺼비는 친구』 중 「이야기」

■ 심화 활동 영화 <우리들> 감상하기

영화 <우리들>을 감상한 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학교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던 선이는 방학 직전에 전학을 온 지아와 친해진다. 여름방학 동안 둘만의 소중한 우정을 만들어가던 두 사람은 사소한 오해로 사이가 멀어지고 급기야 개학 후 서로를 공공연히 증오하고 몸싸움까지 벌이게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공감으로 둘은 다시 조금씩 가까워지게 된다.

1.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2. 선이와 지아가 싸우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요?

3. 영화 속 장면과 유사한 나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4.『죽이고 싶은 아이』와 이 영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5. 진정한 우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